# ‘천년 세우다’ 불사에 불자 마음 ‘하나로’

**전국 사찰들, 불사 기금 전달 잇달아**
**조계종 원로 종상, 종하 스님 기부**
**제주 약천사 신도 부부 기금 전해**
**대구 대관음사 사부대중 보시 동참**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위한 사부대중의 보시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종하 대종사, 분당 석가사, 제주 약천사 신도 부부, 대관음사의 전달 모습.

신성민 기자 · 오윤겸 수습기자

조계종이 추진하는 ‘천년을 세우다’ 불사의 성공을 위해 종단 원로스님부터 지역 불자까지 사부대중의 기금 답지가 이뤄지고 있다.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종하 대종사는 4월 1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만나 천년을 세우다 기금 5000만 원을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종하 대종사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 후 원력 불사들이 천 리 길을 빠르게 달리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종단 불사가 더욱 활기를 띠도록 축원하겠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열암곡 마애 부처님 바로 모시기를 비롯해 아미타 요양병원 개원 등 종단 추진사업에 기금이 잘 활용될 것”이라며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동참해주신 대종사 스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분당 석가사 주지이자 조계종 원로의원인 종상 대종사도 경주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불사에 동참했다.

석가사 대중은 4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불사 기금으로 1550만 원을 전달했다.

기금은 석가사 주지 종상 대종사(조계종 원로의원)을 대신해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부주지 성행 스님(청계사 주지)이 아름다운동행에 기탁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이날 기금전달식에 참석한 신도들에게 “전달된 성금 덕분에 마애불 바로 모시기 원력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면서 “이번 불사에 동참한 공덕으로 부처님 가피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행 스님은 “청계사와 석가사가 지역은 다르지만 서로 교류를 자주 하고 있다”면서 “두 사찰 신도들과 함께 경주 남산 성지순례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 지역 불자 부부가 뜻을 모아 천년을 세우다 모금에 동참하기도 했다. 제주 약천사 신도인 정준섭 · 정선이 불자 부부는 4월 1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천년을 세우다’ 기금 1000만 원을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아내 정선이 씨는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직접 보고 왔다. 누워계신 부처님을 보니 눈물이 흐르며 불사에 동참하고 싶었다”면서 “현재 제주도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 번창한다면 더 큰 금액으로 불사에 동참할 마음이 있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제주에서 불사에 동참하고자 먼 길을 달려와 줘 고맙다”면서 “마애부처님과 함께 평안한 마음으로 임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회주 우학)는 4월 1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 및 천년을 세우다 기금으로 3000만 원을 전달했다.

전달된 기금은 천년을 세우다 2500만 원,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 500만 원으로 아름다운 동행에 기탁됐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귀한 성금을 전달해줘 고맙다”며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에 동참하는 것은 불교의 자비심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도 동참한 대관음사 신도들에게 “열암곡 마애불을 보러 직접 가보길 바란다”면서 “넘어진 마애 부처님을 바로 모시면 대관음사도 더욱 잘 될 것”이라고 격려를 전했다.

회주 우학 스님을 대신해 참석한 주지 대륜 스님은 “회주 스님께서 더 큰 금액으로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을 전하셨다”며 “동문회장과 신도단체들의 신심 원력으로 앞으로 전법 포교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 태고종, 유명무실 ‘불교문예원’ 활성화 나선다

**중앙종회 제147회 임시회서**
**‘불교문예원법’ 개정안 가결**
**문예원장에 성해 스님 임명**
**총무원장 후보 토론회 ‘파행’**


태고종 중앙종회가 4월 11일 개최한 총무원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前 총무원장이 도산 스님이 난입해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태고종이 그간 유명무실했던 종단 기구인 ‘불교문예원’을 활성화 한다. 이를 통해 전통사찰 발굴과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법담)는 4월 11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대회의실에서 제14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불교문예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이 의안 발의한 ‘불교문예원법 개정안’은 전통사찰, 문화재 보유 사찰의 발굴과 지원을 할 수 있는 직능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대해 태고종 총무부장 도성 스님은 “종단의 유명무실했던 불교문예원을 활성화하고 대정부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시키려 한다”면서 “전통사찰 및 문화재 보유 사찰에 대한 전문인력 배치와 전문위원회 구성하도록 유도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에 따라 제2조 직능에 △전통사찰 보존 발굴 및 계승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에 대한 사항 △문화재 보호 및 문화재 사찰 보존 발굴 및 계승 발전에 대한 지원 사항이 추가됐으며 △전통사찰 주지회 △문화재사찰 주지회 △대정부 협력기획단 등 전문분과위원회 구성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태고종 중앙종회는 불교문예원장 및 부원장 임명동의안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불교문예원장에는 성해 스님, 부원장에는 대원 스님이 임명됐다. 임명동의 가결 직후 성해 스님은 “태고종 전통 사찰이 90여 개에 이른다. 이에 대한 지원이 오래 전부터 과제로 대두됐다”면서 “종단 발전을 위해 문예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태고종 중앙종회는 중앙종회법, 초심원법, 승려법 등의 자구 수정과 종무원 자격 기준표 정정을 골자로 한 종헌종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분과위원장 회의에서 개정안을 다시 마련키로 하고 6월 종회로 이월했다.

또한 태고종 중앙종회는 △2022년도 종단 종무행정 및 사정직무 감사보고 △2022년도 종단 세입 세출 결산안 등을 안건 상정하고 처리했다.

하지만, 태고종 중앙종회가 개최하기로 했던 제28대 총무원장 후보자 종책 토론회는 일부 스님의 돌출 발언과 주최 단체에 대한 이견으로 막말과 고성이 오가며 결국 파행되며 마무리됐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前총무원장 도산 스님이 토론회에 앞서 “청련사 재단 설립 승인을 한적 없다”면서 기호 1번 상진 스님에 대한 자격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중앙종회의장 법담 스님이 “오늘은 선거인단의 한 축인 중앙종회의원들이 후보자의 정견을 들을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다. 질의는 쪽지로 받겠다”면서 장내를 정리하려 했지만, 도산 스님은 계속 고성을 지르며 발언권을 요구했다. 급기야 법담 스님은 “퇴장시키라”며 상호 고성이 오갔다.

논란 끝에 토론회가 시작됐지만, 후보자들의 모두 발언만 진행되고 질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기호 2번 성오 스님이 진행 방식의 문제를 삼아 언쟁을 벌였다. 결국 첨예한 대립과 설전 끝에 토론회는 1시간여 만에 파행으로 끝을 맺었다.

신성민 기자

# 제2교구본사 용주사 주지 성효 스님 임명

**진우 스님 임명장 수여…천년 세우다 기금 전달도**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 주지에 성효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4월 12일 제2교구본사 용주사 주지에 성효 스님을 임명했다.

진우 스님은 “용주사는 총무원과 가장 가까운 본사 중 하나이고, 여러 위상으로 볼 때 중요한 교구살림이므로 주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자주 만나 종단 대소사를 서로 협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4월 12일 제2교구본사 용주사 주지에 성효 스님을 임명했다.

이에 성효 스님은 “종단과 총무원장 스님의 뜻을 잘 받들어 종단과 총무원이 추진하는 주요 종책들이 원만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임명식에 앞서 성효 스님은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에서 “태산을 무너뜨리는 각오로 종무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성효 스님은 “교구와 종단의 현안을 생각하면 걱정이 태산이다. 태산 같이 산적한 문제들을 무너뜨려야 한다. 핵심은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법, 포교 방안에 대해 스님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맞춰 포교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화두를 던졌다. 그러면서 스님들의 의식 전환을 주문했다.

성효 스님은 “요즘 유튜브를 보면 일반인들이 자신들이 전문 지식들을 전하고 있다. 스님들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미디어가 범람하고 고도의 과학기술이 지배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스님들은 공학도, 과학자가 돼야 한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효행본찰인 용주사의 특성을 살린 포교 종책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성효 스님은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면서 “부모, 가족, 친구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제2교구본사 주지로 임명된 성효 스님은 정대 스님을 은사로 1982년 수계(사미계)했다. 제14 · 15 · 16대 중앙종회의원,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총무원 호법부장, 삼막사 주지, 제23교구본사 관음사 주지를 역임했다.

한편, 성효 스님은 임명식 직후 ‘천년을 세우다’ 기금으로 3000만 원을 전달했다. 신성민 기자


일붕신문 창간 40년 기념식



제5대 총재 화산 월인
(습득) 대종사 추대 취임식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회장 · 이사장
(사)대한불교승가종 종정

일 시 4월 25일(화) 오후 2시
장 소 백범 김구기념관 컨벤션홀

• 주최 : 일붕신문사 • 주관 : 봉행위원회 • 후원 :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세계법왕일붕문도중앙회 (사)세계불교연합법왕청